

본 섹션은 도시에 대한 집단으로서의 분석적 이해 보다는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한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 부분적이며 주관적인 이야기들 속에는 분석적 시각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있다. 우리는 용적률 게임이 동시대 한국적 상황에서 거주하는 일반 삶의 요청에서 기인하였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인 경험의 확장amplification은 통계와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시적 현상과 개별적인 삶의 연관성을 말할 수 있다. 본 건축 전시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주자들의 목소리만 남겨진 정지된 풍경의 영상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억과 주변 건조환경을 함께 관조contemplation하도록 만든다. (정연두) 또한 무단 증축된 도시의 구성체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린 이 도시의 숨은 욕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백승우) 그러나 이러한 일그러진 도시의 부분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기록하고 기념하는 과정은 이 도시의 기형적 현상이 단순한 욕망에 그치지 않음을, 그 이면에 우리의 변하지 집단 정서collective sentiment가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강성은)